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792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2월 5일 (음력 10월 26일) 수요일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 "세계 5대 해양강국 도약"

## 2016년 부가가치 年 125조·고용창출 295만명…특별법 제정 시급

### 여수 엑스포 정책포럼

2012 여수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엑스포 유치기념 정책포럼'에서 '여수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전략 및 해양강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광주일보를 비롯, 부산일보·MBN·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공동 주관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원장은 "여수엑스포 개최는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의 관광발전 ▲우리나라와 일본·중국을 잇는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해양인력 확대 ▲해양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통합 해양행정체제 강화와 해양외교력 강화 등의 장단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이 같은 여수엑스포를 전략적 이벤트로 삼아 현재 세계 12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력을 5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면 국내총생산에서의 해양부문 비중이 현재의 7.8%에서 10.1%로 늘어나고 취업자 수는 210만 명에서 313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통해 2016년께에는 연간 125조원의 부가가치와 295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또 "우리나라 현재 해양력은 조선·해운·항만산업이 견인하고 있다"며 "향후 해양 정책은 환경과 삶의 질, 과학기술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진 해양사업 모델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수세계엑스포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해양사업 모델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운영조직인 조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출입국·통관·관세·세금·운송 우대방안과 예산·인원·행정처리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참가국 확보를 위한 마케팅,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후활용전략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우윤근 의원을 통해 기조발언문을 보내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성~고창 고속도 13일 개통**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장성~고창 고속도로(총연장 17.2㎞)가 13일 개통된다. 2002년 착공된 이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총사업비는 3천542억원이 투입됐다. ▶관련기사 2면 /장성=나명주기자 mjna@

# 대선 판도 오늘 분수령

## BBK 수사결과 발표…문국현, 범여 후보단일화 공식 제안

### 대선 D-14

17대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보수와 개혁 진영의 합종연횡이 구체화되면서 대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5일에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대선 판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6일까지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저와 정동영 후보 중 한 명이 살신성인의 결단을 하자"며 후보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정동영 후보도 이날 문 후보의 단일화 제안 직후, 전남 나주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가 사실상 후보단일화 실행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민주당 이인제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물밑 접촉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명의 후보가 각개약진하던 대선구도는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범여권 단일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간의 3자 구도로 사실상 압축되는 양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대 의대 화순으로 옮긴다

## 빠르면 2012년 이전…제 1캠퍼스로 사용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빠르면 5년안에 화순으로 이전된다.

전남대는 최근 화순에 설립중인 '의생명과학 융합센터'(이하 센터)로 의대 캠퍼스를 옮긴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캠퍼스 이전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전안은 전남대의 '의생명과학 융합센터'가 이미 지난해 교육부를 거쳐 국회까지 통과한 상태라 승인 전망이 밝다.

전남대 관계자는 "의대는 병리학, 생리학, 미생물학, 해부학 등 기초 분야 연구실 및 학장실 등 주요 시설이 옮겨지는 화순이 제1캠퍼스가 되고, 현 광주 동구 학동의 의대 건물은 전남대 병원 임상학과가 쓰는 학동 캠퍼스가 될 것"이라며 "화순 센터의 설계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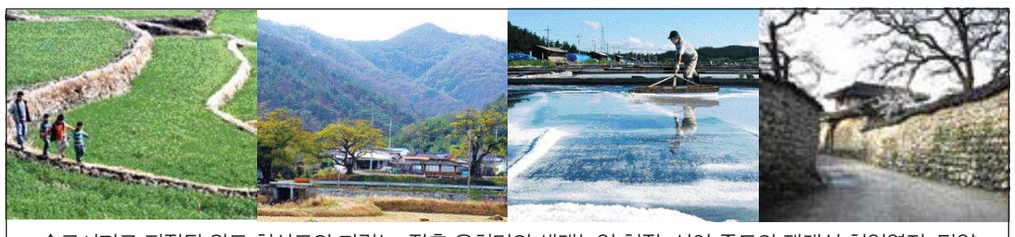
캠퍼스가 이전되면 진료와 관계 없는 병리학과·해부학과·미생물학과 등 기초의학 분야의 교수들은 화순 제1캠퍼스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게 되며 480여명의 의대생들은 화순으로 등교하게 된다. 다만 임상실습은 지금과 같이 학동 캠퍼스와 전남대병원에서 이뤄진다.

화순에 세워지는 의생명과학융합센터는 지난해 설계를 발주해 당선작이 확정됐다.

새 캠퍼스는 화순 전대병원 인근 3만3천㎡ 부지에 학장실 등 사무실이 입주할 지원시설동 1개와 강의·연구·실험·실습이 이뤄질 건물 2개 등 3개 동으로 이뤄진다.

전남대 관계자는 "의과대학 캠퍼스 이전안에 대한 교육부 승인이 날 경우 연간 70억~100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받아 2012년~2013년 의대 제1캠퍼스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의 다랑논, 장흥 유치면의 생태농업 현장, 신안 증도의 재래식 천일염전, 담양 창평의 전통 한옥과 돌담(왼쪽부터)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완도 청산·장흥 유치·신안 증도·담양 창평

# 아시아 첫 '슬로시티' 국제인증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슬로시티(Slow City)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담양 창평, 장흥 유치, 완도 청산, 신안 증도 일원이 지정됐다.

'슬로시티 국제연맹'은 지난 3일 이탈리아 그레베인 키안티에서 열린 총회에서 담양 등 전남 4개 지역을 슬로시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 일대는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전통 가옥마을, 죽공예품, 전통음식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장흥군 유치면은 수려한 산악 경관 속에 표고재배, 장수풍뎅이 자연학습장, 전통방식의 장 담그기와 생태농업을 내세웠다.

또 완도군 청산도는 다랑논과 구들장논, 해녀 등 독특한 전통문화가 장점으로 꼽혔으며, 신안군 증도는 재래식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과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등이 돋보였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4곳을 브랜드화해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슬로시티 운동= 2002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의 시장으로 재직중이던 파울로 사투르니니가 마을 사람들과 세계를 향해 '느리게 살자'고 호소한 데서 비롯됐으며 빠른 생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문화를 느끼며 쾌적한 삶을 향유하기 위한 운동. 전남 4곳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슬로시티는 전세계적으로 11개국 97개 도시로 늘었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